ZEROIN FUND

RESEARCH

Monthly

2009년 11월

제 91호

CONTENTS

1. Issue Report
2. 국내펀드 동향
3. 해외펀드 동향
4. 현금유출입 동향
5. 변액보험

<Focus>

2010년 펀드관련 세제 무엇이 달라지나?

<국내펀드>

증시 두달 연속 조정, 국내주식펀드 -1.24%

<해외펀드>

금값 고공행진, 금펀드 야호

<현금유입>

비과세 종료로 해외펀드 환매확대

<변액보험>

두 달 연속 하락, 일반펀드보다 선방

이 보고서는 펀드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운용사나 펀드를 권고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내용에 의존해 행해진 누구의 어떠한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될 수 없습니다. [저작권]

ZEROIN

2009년 11월 이슈리포트

2010년 펀드관련 세제 무엇이 달라지나?

내년부터 비과세·감면제도 상당수 사라져

2009년 말 이후 새롭게 개편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세제변화로 기존의 비과세· 감면제도가 사라지고 내년도부터 상당수가 과세로 전환돼 투자자들의 세금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장기주식형·장기채권형 펀드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고수익고위험 펀드의 저율분리과세,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이 일제히 올해 말로 종료된다.

투자자의 세금부담 커질 듯

지난 8월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관련법률의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국회에 제출된 세법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친 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시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에서 법률 공포안이 의결되면 정식으로 공포·시행된다.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여지 남아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중인 세법개정안은 입법절차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펀드관련 세제개편방안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살펴본다.

1. 비과세 혜택 사라지는 해외펀드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 내년부터 사라져

환율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돼 해외펀드 대중화에 기여했던 해외펀드의 주식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내년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논란이 됐던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ETF에 대해서도 일반펀드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배당소득세 과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원금을 회복하지 못했음에도 손실의 회복 분에 대해 과세하는 문제점을 완화하고자 비과세 시행 이후 손실을 본 투자자의 경우 비과세 기간중의 해외주식 평가손실을 2010년 발생이익과 상계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 내용 >

▪ 2007.6.1일부터 국내에 설정된 펀드가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하여 발생한 매매·평가손익에 대해 비과세(2009.12.31. 일몰)

- 단, 국내주식형 펀드 등과 마찬가지로 주식으로부터의 배당 등 일반적인 이자·배당수익과 채권매매손익 등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해외상장주식의 환차손익에 대해서도 과세

비과세 시행 이후 주식·매매평가손실은 2010년 발생이익과 상계허용

해외펀드 비과세가 시행된 2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해외펀드 시장규모는 크게 확대되었으나 투자성과 측면에서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의 종료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지만 문제는 아직도 많은 투자들이 해외펀드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는 점이다. 비과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상황에서 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원금손실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은 세금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였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2009년 말 기준의 평가손실을 내년도 발생소득과 상계하는 것을 허용했다.

평가손실 계산에서 환매손익은 제외

정부의 기본방향이 공개되었지만 아직도 입법에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고 진행 중임에 따라 해외주식 평가손실과 2010년 이익금액을 상계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다.

내년도 발생이익은 주식평가손익과 환차익을 포함

우선 기존투자자들의 평가손실의 계산은 환차손익을 제외한 2007년 6월 1일 이후의 해외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손실만을 대상으로 하고, 내년에 발생한 이익은 주식평가손익과 환차익을 포함한 전체기준가 상승분을 기준으로 계산할 것으로 보여진다. 손실금액의 계산 기간은 펀드 가입시점이 아닌 비과세 시행시점 또는 최근 재투자 시점부터 올해 말 비과세 종료 시점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투자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없어

또한 펀드는 일반적으로 매년 특정일에 결산을 하고 세금을 정산하는데 상당수의 펀드들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기준가격이 1,000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결산에 따른 세금정산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수익이 발생했던 펀드들은 결산에 따른 재투자를 했고, 이러한 펀드는 결산 이후 기준가인 1,000원을 기준으로 상계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이때 이미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 따라서 결산 이후 주가하락에 따라 손실이 있었다면 결산이 없었던 펀드에 비해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것이다.

2. 장기주택마련펀드 세제혜택의 한시적 연장

장기주택마련펀드 비과세3년 연장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연간 불입금액의 40%, 연간 300만원한도)와 이자배당 소득 비과세 혜택을 중복적용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소득공제는 올해 안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을 듯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중복적인 혜택이 과도하고 사실상 주택마련과 무관한 일반 상품이라는 이유로 지난 8월 세제개편안 발표시 내년부터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일몰시한을 2012년 말로 3년 연장하되, 소득공제는 폐지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정부가 9월에 기존 가입자에 대한 신뢰보호 및 서민층 지원 취지 등을 고려하여 2009년 말 이전 가입자에 대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경우 20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보완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보완방안이 입법을 통해 확정될 경우 해당 소득공제 대상자의 94.3%인 132만명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장기주식형·회사채형, 고수익고위험 펀드 세제지원 올해 말 종료

지난해 10월 금융위기시 증시안정 대책으로 나온 장기주식형펀드(1인당 분기별 300만원 한도) 및 장기회사채형펀드(1인당 5천만원 가입한도)는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올해 안에 장기주식형 펀드(국내주식에 자산의 60%이상 투자)에 가입해 3년 이상 적립식 투자의사를 표현한 경우 3년 동안의 불입금액(1년차 불입금액의 20%, 2년차 10%, 3년차 5%)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년 말로 일몰 종료

투자부적격등급(BB+이하) 채권에 투자하는 고수익고위험펀드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혜택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금년말로 종료될 예정이므로 올해 안에 가입해야 3년간 펀드 별로 1억원까지 저율·분리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 2009년 세제혜택축소 및 종료대상펀드

대상 펀드	현행	개정안	비고
해외주식형펀드	해외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해외주식형 펀드의 경우 해외상장주식 매매 · 평가이익에 대해 비과세	2009년 말까지 적용후 일몰 종료	올해말까지 손실이 발생한 경우 2010년에 발생한 이익과 상계가능
장기주택마련펀드	2009년 말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 이자 · 배당소득비과세 및 불입금액의 40% 소득공제(연간 300만원 한도), 납입한도는 분기당 300만원	이자 · 배당소득 비과세는 2009년말에서 2012년말까지 3년간 일몰기간 연장, 단 소득공제는 폐지	(수정안-총급여액 8,800만원이하인 경우 2012년까지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
장기주식형펀드	만기 3년 이상의 장기 주식형 펀드(국내주식비중 60%이상, 1인당 분기별 300만원 한도)에 한해 납입금액의 5~20%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해외펀드 매매차익 포함) 비과세	2009년 말까지 적용후 일몰 종료	
장기회사채형펀드	만기 3년 이상의 장기 회사채형 펀드(1인당 5천만원 가입한도)에 대하 금년말까지 배당소득 비과세	2009년 말까지 적용후 일몰 종료	
고수익고위험펀드	투자부적격 등급(BB+이하) 채권에 10%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 3년간 펀드별 투자금액 1억까지의 수익에 대한 5%저율 분리과세 적용	2009년 말까지 적용후 일몰 종료	

자료 : 기획재정부

4. 녹색펀드 세제 지원 신설

현재 출시된 주식형 녹색펀드는 대상에서 제외

펀드관련 세제혜택 가운데 유일하게 신설된 제도가 녹색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이다. 녹색산업 및 녹색기술 발전, 녹색관련 프로젝트 활성화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자산의 60%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펀드에 3,000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금액의 10%를 소득 공제하며,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출시된 주식형 녹색펀드들은 관련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자전거 도로, 신재생 에너지시설 등 녹색기술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특별자산펀드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녹색펀드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선 투자대상 기업이 정부로부터 녹색기술 프로젝트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데다 주식형 녹색펀드들의 경우 현재 장기주식형 펀드의 세제혜택을 적용 받고 있어 이중혜택 적용 및 녹색기업 선정 등의 문제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5. 그 밖의 개정 사항

1) ETF 증권거래세(0.1%) 과세- 2012년부터 시행

ETF 증권거래세 2012년부터 과세

배당소득세도 부과될 예정이어서 논란여지 남아

현재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ETF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ETF의 경우 거래의 실질은 주식거래와 동일하므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되, ETF 시장위축을 고려해 일반세율의 1/3수준인 0.1%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12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방안을 수정했다.

2)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0.3%) 면제 종료

주식형펀드 거래세 부과로 수익률 하락 불가피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에 따라 주식시장 안정차원에서 공모펀드에 대한 면세를 1년 연장하였으나 2010년부터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과세한다. 지난해에 비해 국내 증시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공모펀드 투자가 활성화 되는 등 당초 지원 취지를 상당부분 달성한 데 따른 결정이다. 더불어 파생상품 거래세의 신설 여부가 논의 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매매회전율이 높은 주식형 펀드의 경우 매매비용증가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현선물 차익거래형 인덱스펀드와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시장중립형 펀드도 거래세 부과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전망이다.

3) 부동산 펀드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율 축소 및 기한 연장

투자재산의 50%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부동산펀드에 대한 부동상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기존 50%에서 30%로 축소하는 대신 일몰기간을 2012년 말로 3년 연장한다.

■ 부동산 펀드관련 세제변화

구분	현 행		수 정	
	감면내용	일몰	감면내용	일몰
유동화전문회사[주1]	부동산 취.등록세 50% 감면 대도시內 부동산 등기시 등록세 중과(3배) 배제	2009.12.31	좌 동	2012.12.31 (3년연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주2]		일몰없음		2012.12.31 (일몰신설)
부동산투자회사(REITs) 및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부동산 취.등록세 50% 감면	2009.12.31	감면율 50%→30%로 축소	2012.12.31 (3년연장)
	대도시內 부동산 등기시 등록세 중과(3배) 배제		좌 동	
미분양주택 리츠·펀드[주3]	건설사로부터 취득한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30%) 면제	2009.12.31까지 취득(잔금 청산 기준)	좌동	2010.2.11까지 취득으로 연장(개약체결 기준)

주1) 대출채권, 부동산 등 금융기관 보유자산을 양도.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paper comp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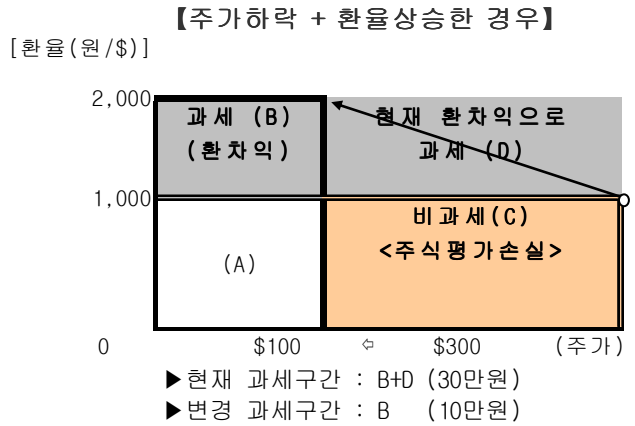
주2) 설비투자, SOC 등 대규모 단위사업 추진을 위해 금융기관과 프로젝트 참여기업이 출자하여 설립하고 미래의 현금수입을 상환재원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paper company

주3) 미분양주택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된 리츠·펀드로서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에 대해 투자한 주택수 비중이 60% 이상인 리츠.펀드

자료: 기획재정부

4) 해외펀드 환차손익 계산방법 변경

현재 금융기관에서는 해외펀드의 과세 대상 환차손익을 일률적으로 "취득시 주가 * 환율 변동분"으로 계산하였으나 주가 하락시에는 환차익이 과대 계산되어 소득세가 과다하게 원천징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주가하락시 환매일 주가를 적용해 환차손익 계산

위의 D부분은 주가하락으로 인해 존재하지 않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환차익으로 계산되어 과세됐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과세대상 해외펀드 환차손익에 대한 계산 방법을 다음 표와 같이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환차익이 과다 계산되어 이미 세금을 납부한 투자자들은 소득세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금융기관들이 과세소득을 다시 계산하는데 일정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실제로 세금을 환급 받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해외펀드 환차손익 계산방법

변경 전	변경 후
취득일 주가 × 환율 변동분	(주가상승시) 취득일 주가 × 환율 변동분
	(주가하락시) 환매일 주가 × 환율 변동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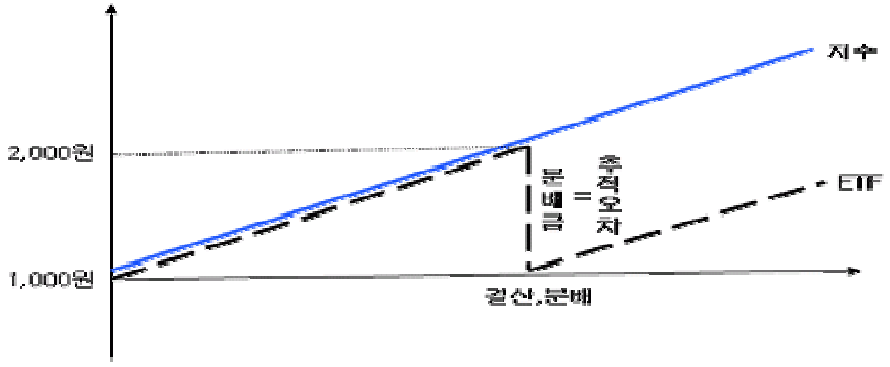
5) 파생상품형 ETF 등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 명확화

파생상품 ETF 과세시기 조정허용

현행 소득세법은 펀드의 결산시 평가이익은 투자자에게 분배하지 않고 유보할 수 있으나 실현이익은 반드시 분배하여야 한다. 현물에 투자하는 경우 상당부분이 평가이익으로 과세되는데 반해 파생상품거래에서는 실현이익으로 나타나므로 결산에 따른 분배와 과세가 발생했다. 이처럼 투자이익의 분배·과세로 추적오차가 발생하는 탓에 파생상품형 ETF가 출시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파생상품 ETF의 결산시 실현이익도 분배대상에서 유보할 수 있도록 과세시기 조정을 허용하지만 매도시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도록 보완한다.

상장펀드 매도시 배당소득세 부과

더불어 폐쇄형(환매금지형) 상장펀드 매도시에도 배당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상장여부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일반펀드처럼 과표기준가를 이용해 과세할 경우 상장펀드의 주가가 과표기준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점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사항은 금융기관의 원천징수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간이 필요함을 감안하여 2010년 7월 1일 결산시 및 2010년 7월 이후 발생하는 이익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6. 맺음말

세제상품에 대한 가입 서둘러야

세제개편안이 공개된 이후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투자상황을 점검하고 미리 그에 따른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해외펀드 비과세 폐지로 투자자의 자산구성의 특성과 가입시기, 종합소득과세 여부 등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 무엇보다 내년부터는 세제혜택이 종료되거나 축소되는 상품이 증가하므로 이들 상품에 대한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모 주식펀드에도 증권거래세를 물리기 때문에 매매비용이 펀드수익률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것으로 예상돼 매매회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주나 배당주펀드에 투자하면 거래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해외펀드 내년도 환매하면 세금부담 줄일 수 있어

해외펀드에 투자해 손실을 본 투자자의 경우 2009년 말 평가손실을 내년에 발생한 이익과 상계를 허용하므로 내년에 환매하는 것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비과세 폐지를 이유로 해외펀드 환매를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자지역의 전망과 펀드 운용성과 등을 고려해 환매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만약 내년에 종합과세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면 올해 내 수익실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세금부과에 연연하기보다 시장상황 살펴야

오히려 해외펀드 환매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비과세 혜택보다 시장상황이라는 점이다. 전문가들도 해외펀드 비과세 폐지로 인해 펀드런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비과세혜택이 주어졌던 기간에 이 혜택을 누린 투자자가 많지 않고, 아직도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환매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것이 그 이유다. 또한 해외시장상황이 호전되면 고수익이나 위험분산의 유용한 수단인 해외펀드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란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최근 해외펀드 설정액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성과개선으로 원금회복에 근접한 중국, 브릭스 중심의 신흥국 펀드에서 환매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향후에도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브라질펀드로는 자금유입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주식펀드와 달리 해외펀드의 경우 하락기보다 반등기에 자금유입이 늘었던 후행적 투자패턴을 보였고, 이는 과거수익률이 해외펀드 투자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 장기주식형펀드 활용하면 해외주식 투자시에도 세금부담 낮출 수 있어

장기주택마련펀드의 경우도 올해 안에 가입해야 이자배당 소득 비과세 및 불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수정안)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펀드 중에도 해외투자펀드가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할 경우 모든 이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것을 요건으로 장기주식형 펀드의 경우도 올해 안으로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들 펀드 가운데 자산의 30%가량을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테마펀드도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성욱 제로인 펀드애널리스트 www.funddoctor.co.kr]

2009년 11월 주식시장 동향

증시 두달 연속 조정, 국내주식펀드 -1.24%

주식시황

11월, 코스피 1.59% 하락

글로벌 증시 상승 흐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상승 모멘텀 부재, 수급악화 지속, 전세계적인 출구전략 논란 등의 유동성 축소 불안감, 원/달러 환율 하락 등 부정적인 요인으로 두달연속 조정세가 이어지며 1.59% 하락했다.

월 중반까지 글로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증시는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상승기조에서 소외된 모습을 보였다. 월 후반 1,620선까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27일 두바이 월드의 모라토리움(채무지급 유예) 선언으로 1,524.5 포인트까지 주저앉았다.

두바이발 악재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긴 했지만 예전과 같은 금융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에 하루만에 반등하기는 했지만 1만선에 안착한 미 다우지수와 3,000선을 유지한 중국 상해증시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대형주 -1.26%로 선방

시가총액별로 살펴보면 이렇다 할 주도주가 부재한 가운데 소형주와 중형주는 각각 3.97%, 4.09% 하락했고, 대형주는 -1.26%로 비교적 선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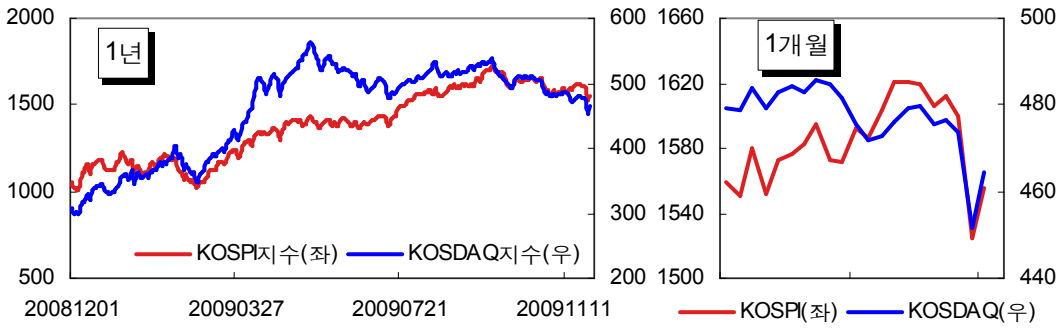
철강금속 7.44% 급등 의약품 -9.16%

업종별로는 원화강세로 인한 수혜와 상품주 강세 및 중국효과 등의 호재로 철강금속이 7.44%급등했고, 음식료품과 화학이 각각 2.21%, 2.19% 상승하며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의약품(-9.16%), 기계(-7.98%), 운수장비(-7.74%)는 하락폭이 큰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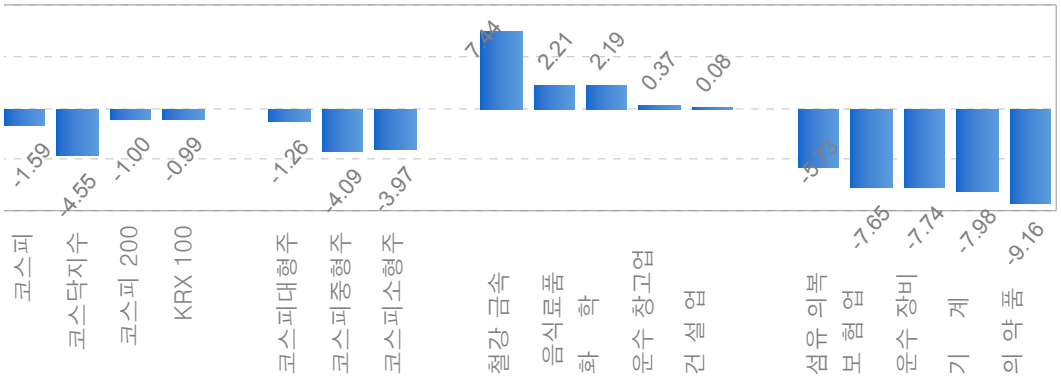
그동안 글로벌 증시와의 역차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왔던 건설업종과 은행업종이 두바이 월드의 직격탄을 맞으며 27일 하루동안 -6.7%, -5.6%씩 하락해 한달간 0.08%, -2.63%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내주가지수 추이 (1년)

기준일 : 2009년11월30일



거래소 주요 지수 및 업종별 상하위 월간 수익률



자료 : 제로인(www.funddoctor.co.kr)

2009년 11월 채권시장 동향

채권 시황

단기물 위주의 강세로 인한 수익률곡선 스티프닝

11월 채권시장은 통화긴축에 대한 불확실성의 해소와 듀바이 쇼크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현상에 힘입어 단기물뿐만 아니라 중장기물에 걸쳐 전반적으로 채권 금리가 하락하며 강세를 보였다.

월초 채권금리는 10월말 이후 금리하락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의 출회, 호주 기준금리 인상(25bp)과 FOMC의 저금리 기조유지 발언 및 금통위를 앞둔 경계심리의 영향으로 발향을 잡지 못하고 중장기물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한 반면, 단기물은 강세를 보이며 장·단기간 금리차이가 심해지는 수익률곡선 스티프닝(steepening)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금통위에서 통화완화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확인되고, 재고조정과 재정지출 등이 감소하면서 4분기 이후 경기회복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금리 인상폭이 시장 예상보다 낮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여기에 미국, 유럽, 영국 등도 통화완화 정책기조를 상당기간 지속할 것을 표하며 중장기물까지 금리하락세에 동참해 채권시장의 강세기조가 확산됐다.

월중반 이후 금리급락에 따른 조정심리, 국고10년물 입찰 후 헷지 매물의 출회, KDI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5.5%) 및 ECB(유럽중앙은행)의 긴축재정 가능성의 제기 등의 요인으로 한때 금리가 반등세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수가 이어지고 벤 버냉키 FRB의장의 저금리 유지발언으로 채권금리는 다시 하락세로 방향을 전환했고, 월말 듀바이 쇼크라는 이슈가 등장하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이 폭락하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현상이 강해지면서 채권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11월을 마감했다.

두바이쇼크로 인한 국내 증시 폭락으로 채권금리 크게 하락

회사채 시장은 월 초반부터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났으나, 월 중반 이후 시장에서 매도 우위의 거래가 주를 이루었고, 특히 AAA등급의 매물이 증가하여 스프레드는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월 후반부터 기관들의 이익실현 매물이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약세흐름을 보여 10월말 대비 스프레드의 폭을 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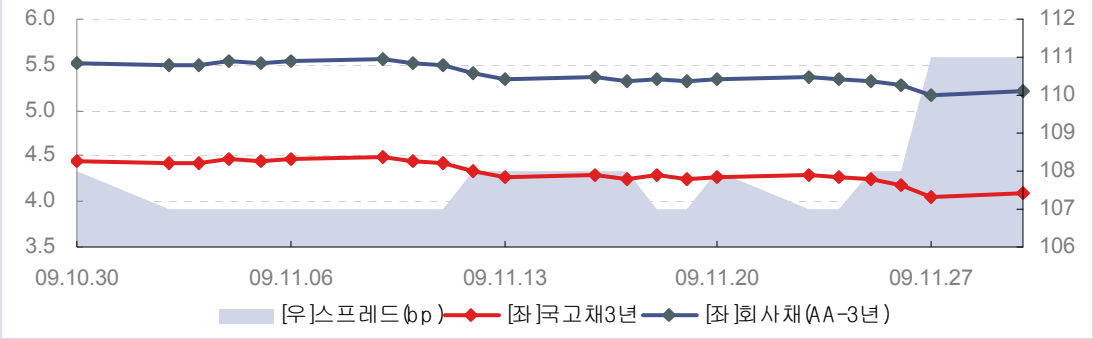
결국 전반적인 채권시장 강세에 힘입어, 한달간 국고채 3년물은 전월말 대비 34bp 하락한 4.1%를 기록했고, 국고채 5년물과 10년물은 각각 33bp, 16bp 하락한 4.81%와 5.25%를 기록했다. 또한 회사채 AA- 3년물도 31bp 하락한 5.21%를 기록하며 11월 한달간 채권시장은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다.

전월대비 주요금리 변동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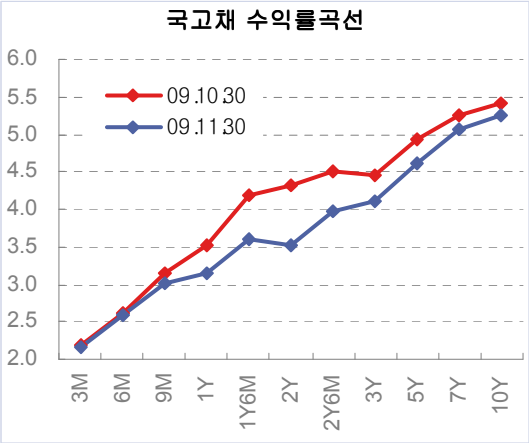
구분	국고채				회사채		단기금융	
	1Y	3Y	5Y	10Y	AA-3Y	BBB-3Y	CD91일	CALL
'09년 10월말(a)	3.51	4.44	4.94	5.41	5.52	11.69	2.79	2.01
'09년 11월말(b)	3.14	4.10	4.61	5.25	5.21	11.27	2.79	2.01
차이(b-a)	-0.37	-0.34	-0.33	-0.16	-0.31	-0.42	0.00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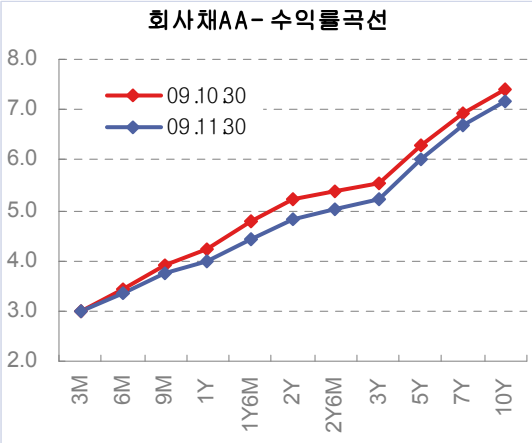
자료 : 본드웹

채권 주요금리 추이



자료 : 본드웹





자료 : 본드웹

2009년 11월 주식 펀드 동향

주식형 펀드 성과

국내주식펀드, 11월간 1.24% 하락

K200인덱스펀드 -0.79%로 선방

중소형주식펀드 하위

펀드평가사 제로인(www.Funddoctor.co.kr)이 12월 1일 공시된 기준가격으로 11월 한달간 국내주식펀드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국내주식펀드는 코스피를 소폭 상회한 -1.2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세부유형별 성과를 살펴보면 각 유형별로 성과편차가 다소 크게 나타났다. 일반주식펀드나 코스피200인덱스펀드 등의 대형주펀드들이 지수대비 양호한 성과를 보였고, 코스닥이 4.55% 하락하는 등 중형주와 소형주의 약세에 중소형주식펀드가 -2.40% 수익률로 주식형펀드 중 가장 저조한 성과를 기록했다.

이외에 주식투자비중이 낮은 일반주식혼합펀드는 0% 수익률로 제자리걸음이였고, 일반채권혼합펀드는 0.2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내 유형별 평균 수익률 및 순자산액

기준일 :2009년12월01일 (단위: 개,억원, %)

대유형	소유형	펀드수	순자산액	1개월	3개월	1년	연초후
주식형	일반주식	454	443,769	-1.23	-1.96	48.90	41.32
	중소형 주식	17	3,123	-2.40	-5.12	54.28	42.59
	배당 주식	32	36,891	-1.38	-0.72	47.23	39.38
	KOSPI200인덱스	113	60,235	-0.79	-1.04	48.07	39.82
주식혼합형	일반주식혼합	66	17,959	0.00	0.26	28.33	23.12
채권혼합형	일반채권혼합	212	35,926	0.20	0.32	17.62	13.93
절대수익추구형	채권알파	118	8,983	0.52	0.60	11.21	9.29
	시장중립	29	3,707	0.13	0.50	3.90	2.74
	공모주하이일드	56	5,140	0.62	0.91	7.53	6.18
KOSPI				-1.59	-2.28	44.56	38.34
KOSDAQ				-4.55	-9.79	51.01	39.83

주1) 순자산액 10억원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 국내 주식펀드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개별 주식 펀드 성과

39개 펀드 증시 하락에도 플러스 성과

중소형가치스타일 펀드 하위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 -자 1' 2.34%로 월간 1위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363개의 주식펀드(기타인덱스펀드 제외)중 39개 펀드가 증시하락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고, 55개 펀드는 코스피 수익률을 하회했다.

대형성장형 펀드들이 지수대비 양호한 성과를 보인 반면 가치형 펀드등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코스닥 약세에 따라 코스닥 비중이 높았던 펀드들이 부진한 성적을 보였다.

펀드별로 살펴보면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 -자 1'가 2.34%로 11월 성과 1위를 기록했다. 시장 주도주였던 IT와 자동차주가 환율 영향으로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편입비중을 줄인 대신 중국 소비 관련주의 비중을 강화한 전략이 주효했다. 이에 2위인 'PCA업종일등 D- 1[주식]Class A'와도 1.35%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전달 상위권에 자리했던 '한국밸류10년투자연금 1(주식)'와 '한국밸류10년투자 1(주식)'는 5% 넘게 하락하며 최하위에 머물렀다.

국내 주식형 펀드 월간 성과 상위 10

기준일: 2009년12월01일 (단위: 억원, %)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연초후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 -자 1	269	일반주식	2.34	5.91	60.97
PCA업종일등 D- 1[주식]Class A	322	일반주식	0.99	1.05	45.10
대신부자만들기 1[주식]Class A	686	일반주식	0.99	-1.18	37.98
하나UBS장기주택마련 1[주식]Class C	290	일반주식	0.59	1.66	42.60
KB스타적립식 1(주식)	358	일반주식	0.58	2.29	58.49
KB코리아엘리트20 자(주식)A	1,059	일반주식	0.57	2.24	44.20
하나UBS황금돼지적립식 (주식)Class C	107	일반주식	0.56	1.33	43.50
하나UBS인Best연금 1[주식]	3,431	일반주식	0.56	1.46	42.68
KB스타多가치성장주적립식 1(주식)	246	일반주식	0.54	2.43	57.98
하나UBSFirstClass연금 1[주식]	269	일반주식	0.54	1.80	43.74

국내 주식형 펀드 월간 성과 하위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연초후
한국밸류10년투자연금 1(주식)	1,431	일반주식	-5.15	-4.91	37.07
한국밸류10년투자 1(주식)	10,323	일반주식	-5.12	-4.98	31.71
유리스몰뷰티 [주식]C/C	659	중소형주식	-4.10	-6.92	32.32
NH-CA대한민국녹색성장자[주식]Class Ci	168	테마주식	-3.73		
한국투자국민의힘 1(주식-재간접)	630	일반주식	-3.66	-4.62	34.38
우리SK그룹우량주플러스 1[주식]A1	289	테마주식	-3.51	-6.19	38.60
신한BNPP직장인플랜 자[주식-재간접](종류C 1)	105	일반주식	-3.28	-4.55	34.95
미래에셋가치주 G 1(주식)종류A	206	테마주식	-3.04	-3.16	39.25
기은SG그랑프리포커스금융 [주식]	154	테마주식	-2.97	-0.93	45.23
미래에셋녹색성장 1(주식)(A)	106	테마주식	-2.93	-5.77	

주1) 1개월 수익률순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주2)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1개월 이상 운용 펀드 대상
주3) 클래스의 경우 대표 펀드만 표시

2009년 11월 채권 펀드 성과

채권형 펀드 성과

국내채권형펀드 1.10% 급등

11월 채권시장의 강세에 힘입어 채권형 펀드는 한달간 1.10%의 높은 성과를 시현했다.

일반중기채권펀드 성과 우수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채권형 펀드는 동일 기간 동안 0.90%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목표 듀레이션을 2~4년으로 하는 중기채권형 펀드는 1.27%로 가장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 이는 11월 채권시장이 장기물에 비해 단기물 및 중기물이 강세를 보였던 것에 기인했다.

국공채 등 우량채권에 투자하는 우량채권펀드는 1.07%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으며,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에 투자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하이일드 채권펀드의 수익률은 0.73%를 기록했고, 초단기채권펀드는 0.29%로 타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국내 채권형 유형 평균 수익률 및 순 자산액

기준일 :2009년12월01일 (단위: 개,억원, %)

대유형	소유형	펀드수	순자산액	1개월	3개월	1년	연초후
채권형	일반채권	41	12,101	0.90	1.75	9.12	6.25
	초단기채권	4	1,475	0.29	0.86	4.65	3.71
	일반중기채권	23	25,013	1.27	1.99	10.70	3.77
	우량채권	16	11,456	1.07	1.63	6.63	3.24
	하이일드 채권	7	719	0.73	1.92	7.55	6.15
KIS채권지수(1년 종합)				0.43	1.13	5.65	4.00
MMF	MMF	133	701,564	0.20	0.59	2.87	2.41

주1) 순자산액 50억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채권펀드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개별 채권 펀드 성과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62개의 모든 채권형 펀드가 모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채권형 펀드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 중 47개 펀드는 KIS채권지수(1년) 수익률 0.43%를 상회하는 성과를 거뒀다.

장기물에 비해 단기물과 중기물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임에 따라 중기채권형 펀드들이 높은 성과를 기록했으며, 일반채권형 펀드들 중에서도 듀레이션을 1년~5년으로 비교적 높게 가져간 펀드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신용등급이 우량한 중단기물에 투자한 펀드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 시현

펀드별로 살펴보면 '와이즈Premier12 2(채권)'이 1.45%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월간성과 1위를 차지했다. 이 펀드는 목표 듀레이션을 2년 이상으로 가져가면서 이 기간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았던 국공채를 60% 이상 투자하고 있었던 것이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했다. 뒤를 이어 삼성 ABF Korea인덱스 [채권](A)', '우리KOSEF국고채상장지수 [채권]' 펀드가 한달간 각각 1.43%, 1.41%의 성과를 올리는 등 주로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채권 중단기물의 비중이 높은 펀드들이 상위권에 자리했다. 또한 월간성과 3위~7위까지 국고채상장지수펀드(ETF)들이 차지한 것도 눈여겨볼만하다.

반면 상대적인 성과가 좋지 않았던 초단기물 혹은 회사채에 투자비중이 높은 펀드들은 하위권을 자리했다. '한국투자퇴직 1(채권)'이 0.11%의 수익률을 기록하여 채권형 펀드들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홍준 제로인 펀드애널리스트 www.funddoctor.co.kr]

[류승미 제로인 펀드애널리스트 www.funddoctor.co.kr]

국내 채권형 펀드 월간 성과 상위 10

기준일: 2009년12월01일 (단위: 억원, %)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연초후
와이즈Premier12 2(채권)	313	중기채권	1.45	1.65	4.59
삼성ABF Korea인덱스 [채권](A)	2,892	중기채권	1.43	2.22	2.53
우리KOSEF국고채상장지수 [채권]	3,510	우량채권	1.41	2.02	
KStar국고채 상장지수(채권)	2,765	중기채권	1.40	2.00	
삼성KODEX국고채권 상장지수[채권]	470	중기채권	1.37	1.97	
한국투자KINDEX국고채 상장지수(채권)	1,150	중기채권	1.36	2.01	
미래에셋맵스TIGER국채 3 상장지수(채권)	1,248	중기채권	1.36	2.01	
피델리티코리아 자N(채권)	548	일반채권	1.35	2.19	0.66
삼성장기주택마련 1[채권]	166	중기채권	1.35	1.84	2.12
동양매직국공채 1(국공채)C- 1	238	중기채권	1.32	1.91	8.35

국내 채권형펀드 월간 성과 하위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연초후
한국투자퇴직 1(채권)	141	일반채권	0.11	0.46	3.89
푸르덴셜리치플러스채권 1	110	일반채권	0.21	0.69	9.00
흥국멀티플레이 5[채권]	141	일반채권	0.21	0.68	3.93
하나UBS단기 1[채권]	242	초단기채권	0.22	0.67	3.16
현대플래티늄장기회사채형 자(채권)C 2	812	중기채권	0.22	0.96	
한국투자퇴직연금 자 1(국공채)	259	우량채권	0.27	0.84	4.00
개인연금공사채 7	173	일반채권	0.28	0.72	2.35
흥국멀티플레이 4[채권]	301	초단기채권	0.29	0.95	3.84
흥국멀티플레이 3[채권]	240	일반채권	0.29	0.88	3.11
하나UBS 4[어음]	715	초단기채권	0.31	0.87	4.25

주1) 1개월 수익률순
주2)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1개월 이상 운용 펀드 대상
주3) 클래스의 경우 대표 펀드만 표시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2009년 11월 해외펀드 동향

금값 고공행진, 금펀드 야호

글로벌 주식시황

11월 MSCI 글로벌주식 2.93% 상승

취약한 신용시장, 실업률 증가 등 불안한 경기회복 속에서 경기선행지수가 상승하고, ISM제조업지수,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감소 등의 호재에 힘입어 글로벌주식시장에 순풍이 불었다. 25일 두바이월드의 채무상환 유예요청소식에 전세계증시가 폭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두바이 사태에 대한 우려가 과도했다는 전망과 함께 하루만에 반등에 선공하며 거래를 마감, MSCI글로벌주식은 한달간 2.93%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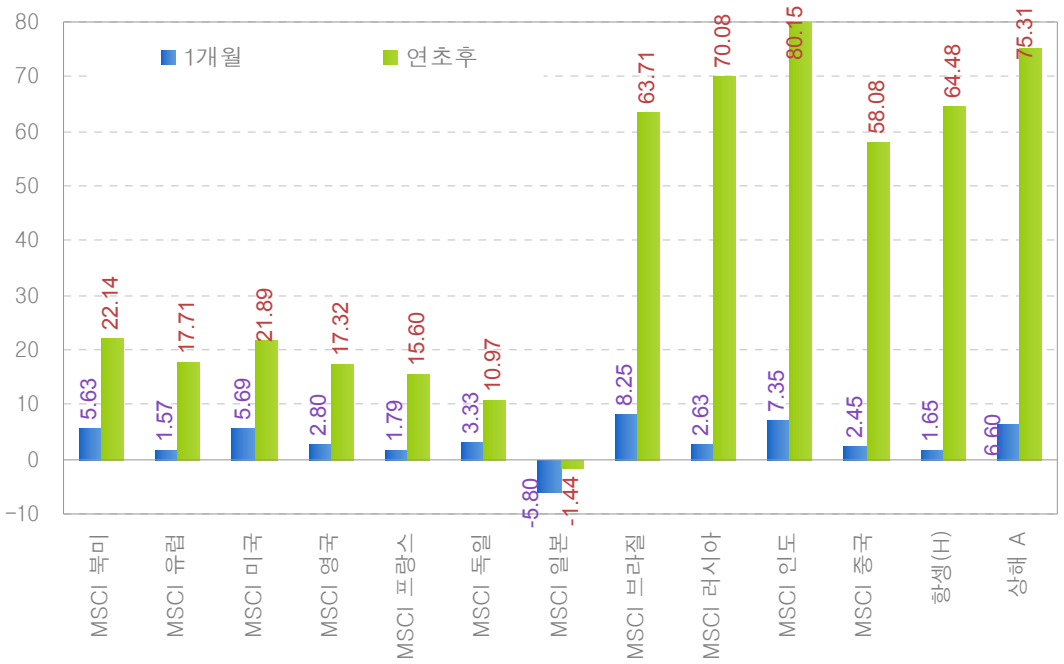
일본주식시장 디커플링 심화

선진시장은 엇갈린 흐름이 전개됐다. 미국과 유로존의 거시경제지표와 기업이익 개선에 연중최고치 경신이 이어졌지만, 일본은 엔화강세, 대규모 유상증자, 공식적인 디플레이션 재진입 선언 등의 악재가 겹치며 MSCI일본 주식이 5.80% 하락했다.

신흥시장 요인에 따라 성과차이 커

신흥시장은 달러약세, 글로벌GDP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요인에 힘입어 상승세를 지속했다. 특히 브릭스 증시가 3~4년 내 30%~40% 상승할 것이란 의견이 나온점도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하지만 중국내부에서도 상해A가 6.60% 오른 반면 홍콩H주는 1.65% 상승에 그쳤고, 브라질과 인도는 7%넘게 상승한 반면 러시아는 2.63%에 그치며 개별 요인에 따라 등락이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해외 주식 주요 지수 등락률 (기준일 : 2009년 11월 30일)



자료: 이데일리

MSCI북미주식 5.63% 상승

11월 뉴욕증시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실업률이 10%를 상회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되기도 했지만 주요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이 상향된 영향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9일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경기회복세가 확고해질 때까지 경기부양책을 지속하기로 약속한 점도 호재로 작용했다. 원자재, 상품주는 물론이고 환율 수혜 기대감으로 다국적기업들까지 지수 상승을 이끌며 MSCI북미주식은 5.63% 상승했다.

MSCI일본주식, 5.80% 하락

MSCI일본주식은 전월말 대비 5.80% 하락마감했다. 글로벌 경제회복 지연 우려가 커진 가운데 달러화 약세로 일본 엔화가 강세를 보인 점이 전기전자, 자동차 등 수출관련주에 악영향으로 작용하면서 전체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3년만에 공식적으로 디플레이션을 인정하며 물가하락과 수출감소라는 이중고가 겹치며 일본 증시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했다.

MSCI중국주식, 2.45% 상승

중국주식시장은 글로벌 수요회복세와 저평가된 위안화, 은행권 대출로 급증한 유동성이 11월에도 증시 및 부동산으로 유입되며 자산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또한 생산, 소비, 무역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들이 호조를 보인점도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MSCI중국주식은 2.45% 상승했다.

MSCI인도주식, 7.35% 상승

MSCI인도주식은 10월의 하락세를 딛고 다시 상승흐름을 되찾으며 11월 한달간 7.35% 수익률을 기록했다. 만모한 싱 인도 총리가 앞으로 수년 동안 9~10%의 경제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전한 가운데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 대상국인 주요 선진국들이 경기후퇴에 처하면서 수출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 GDP성장률이 7.9%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MSCI러시아주식, 2.63% 상승

러시아증시는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을 느끼며 MSCI러시아주식이 2.63% 수익률로 브릭스 국가중 가장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JP모간은 러시아의 2009년 GDP성장률을 -8.5%로 예상했고, 2010년도를 5%로 예상하며 타 신흥국에 비해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들어 MSCI러시아지수가 70%에 달했다. 또한 러시아 증시를 이끌었던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에 경기 회복에 의한 상승요인이 이미 반영된 것으로 판단돼 좁은 범위에서 등락을 거듭한 것 역시 증시 상승 탄력을 둔화시켰다.

MSCI브라질주식, 8.25% 상승

브라질 증시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내수 경기 회복세와 2014년 월드컵, 2016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데 따른 기대감으로 인한 자금유입, 상대적 고금리로 인한 캐리 자금 유입등의 호재가 뒷받침되며 MSCI브라질주식은 8.25% 상승했다. 캐리자금이 지나치게 유입돼 경제에 거품을 키우는 것을 우려하여 브라질 당국이 이자율을 조절하거나 금융거래세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아직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이자율에 캐리자금 유입을 줄이는데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해외 펀드 세부 유형별 성과

해외주식펀드 2.48% 올라

글로벌 증시의 강세에 한달간 해외주식펀드는 2.48% 수익률을 기록했다. 원달러환율 하락에 환헤지를 하지 않은 펀드들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진하게 나타난 가운데 글로벌주식펀드 1.15%, 글로벌신흥국주식펀드 1.70% 성과를 올렸고, 프런티어마켓주식펀드는 2.86% 하락했다.

기초소재섹터펀드 7.44% 급등

금융섹터펀드 -2.48%

섹터별로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는데, 금값이 고공행진을 펼친 영향으로 기초소재섹터펀드가 7.44% 급등했고, 꾸준히 안정적인 성과를 보여왔던 헬스케어섹터가 5.54% 올랐다. 반면 금융섹터펀드는 CIT가 파산하고, 서유럽권 은행이 두바이 관련 부실 대출 문제가 드러나면서 한달간 2.48% 하락하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회복세를 되찾은 인도증시에 힘입어 인도주식펀드는 6.84% 수익률을 기록했고, 브라질 증시 강세에 브라질주식펀드와 남미신흥국주식펀드는 각각

3.35%, 4.6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중국주식펀드는 중국 본토투자 펀드들의 성과에 힘입어 3.31% 상승했고, 유럽주식펀드와 북미주식펀드는 각각 0.39%, 2.26% 성과를 올렸다.

일본주식펀드 -5.52%

디플레이션을 선언하고, 글로벌 증시와 반대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에 투자비중이 높은 일본주식펀드와 아시아태평양주식펀드는 각각 5.52%, 0.82%씩 하락했다.

해외주식혼합형은 0.57% 하락했으나, 해외채권혼합형은 1.05% 수익률을 기록했다. 상품관련 실물 및 인덱스에 투자하는 커머더티펀드는 0.39% 성과를 올렸다.

해외펀드 유형별 수익률 및 순자산액

기준일 :2009년12월01일 (단위: 개,억원, %)

대유형	소유형	펀드수	순자산액	1개월	3개월	1년	연초후
해외주식형		775	428,623	2.48	11.28	53.71	54.90
	글로벌주식	64	4,817	1.15	3.17	25.86	26.49
	글로벌신흥국주식	121	116,967	1.70	12.03	56.95	65.76
	유럽주식	33	4,379	0.39	1.56	13.34	15.75
	북미주식	6	176	2.26	4.99	16.58	18.56
	아시아태평양주식	19	4,139	-0.82	-0.20	34.15	30.53
	아시아태평양주식(ex J)	44	30,425	0.62	3.43	36.69	40.61
	동남아주식	26	6,304	1.85	5.76	57.06	54.05
	아시아신흥국주식	42	26,359	3.07	8.65	60.21	55.81
	유럽신흥국주식	22	7,098	-0.81	11.27	47.65	61.61
	남미신흥국주식	31	12,288	4.60	19.35	73.46	83.18
	프론티어마켓주식	12	497	-2.86	-0.38	8.13	10.07
	일본주식	45	3,977	-5.52	-11.74	-8.13	-7.65
	중국주식	126	165,652	3.31	14.54	60.24	53.72
	인도주식	24	16,175	6.84	9.24	71.46	78.69
	브라질주식	21	4,421	3.35	19.08	95.09	112.28
	러시아주식	20	5,773	1.10	19.96	71.99	105.87
	에너지섹터	26	4,505	0.64	2.62	13.67	14.93
	기초소재섹터	22	4,620	7.44	14.64	44.91	54.71
	소비재섹터	11	810	2.14	4.06	30.80	31.97
	헬스케어섹터	4	513	5.54	6.32	22.47	17.48
	금융섹터	16	2,031	-2.48	-2.20	30.67	36.50
	멀티섹터	28	6,229	2.51	4.70	18.67	20.64
해외주식혼합형		48	45,486	-0.57	7.10	56.40	52.96
해외채권혼합형		59	3,775	1.05	3.43	17.78	17.22
해외채권형		14	6,504	0.77	7.10	24.73	21.45
해외부동산형		34	12,035	-1.00	-0.77	-1.05	4.14
커머더티형		41	3,751	0.39	6.70	13.67	18.47

주1) 펀드수, 순자산액은 해당유형 가중평균수익률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계산시 대상으로 삼은 설정액 10억원(채권형은 50억원)이상 펀드들의 합계

개별 해외 펀드 성과

274개 펀드 플러스 수익률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이상인 347개 해외주식펀드 중 274개 펀드가 플러스(+)수익률을 기록했다. 특히 인도주식펀드와 중국본토주식펀드의 성과가 우수하게 나타났고, 일본주식펀드와 금융섹터펀드의 성과가 저조했다.

'신한BNPP골드 1[주식](종류A)' 13.33%로 1위

개별 펀드별로 살펴보면 금값 상승에 '신한BNPP골드 1[주식](종류A)', '기은SG골드마이닝 자A[주식]'가 각각 13.33%, 12.66%로 1,2위를 차지했고, '블랙록월드광업주 자(주식)(H)(A)'가 8.35%로 4위에 오르는 등 기초소재섹터펀드의 강세가 돋보였다.

기초소재섹터펀드 강세

기초소재섹터펀드를 제외하고는 인도비중이 높은 펀드들이 상위권을 싹쓸이했다.

인도주식펀드 상위권

반면 '신한BNPP탑스일본 1[주식-재간접]'가 -8.06%를 기록하는 등 일본주식펀드가 하위권에 포진했고, 'JP모간중동&아프리카 자A(주식)'는 두바이 월드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5.12% 하락했다.

[류승미 제로인 펀드애널리스트 www.funddoctor.co.kr]

해외 주식형 펀드 월간 성과 상위 10

기준일: 2009년12월01일 (단위: 억원, %)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연초후
신한BNPP골드 1[주식](종류A)	226	기초소재섹터	13.33	24.33	43.53
기은SG골드마이닝 자A[주식]	143	기초소재섹터	12.66	21.21	43.59
미래에셋친디아컨슈머 1(주식)종류A	191	아시아신흥국주식	9.96	22.65	80.47
블랙록월드광업주 자(주식)(H)(A)	1,336	기초소재섹터	8.35	21.16	81.58
피델리티인디아 자A(주식)	2,581	인도주식	7.95	10.78	77.88
미래에셋인디아디스커버리 1(주식)종류A	3,718	인도주식	7.57	9.92	82.83
미래에셋인디아솔로몬 1(주식)종류A	2,961	인도주식	7.10	10.34	84.56
미래에셋인디아인프라섹터 자 1(주식)종류A	706	인도주식	6.76	6.93	113.03
KB인디아 자(주식)A	940	인도주식	6.47	10.52	64.48
미래에셋인디아어드밴티지 1(주식)	106	인도주식	6.30	9.86	70.94

해외 주식형 펀드 월간 성과 하위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연초후
신한BNPP탑스일본 1[주식-재간접]	124	일본주식	-8.06	-14.69	-5.36
푸르덴셜일본주식&리츠 1(주혼-재간접)A	164	일본주식	-7.48	-13.94	-4.95
KB스타재팬인덱스 (주식-파생)A	131	일본주식	-7.15	-11.00	1.38
하나UBS일본배당 1[주식]	237	일본주식	-7.00	-14.72	-9.53
신한BNPP Tops일본대표기업 1[주식](종류A1)	176	일본주식	-6.23	-12.52	-0.71
푸르덴셜재팬코아 1(주식)A	204	일본주식	-5.81	-10.58	-3.52
FT재팬 자(E)(주식)	169	일본주식	-5.43	-10.42	-14.23
삼성당신을위한N재팬 자 1[주식](A)	195	일본주식	-5.42	-11.13	-1.88
프랭클린템플턴재팬 자(A)(주식)	760	일본주식	-5.40	-10.30	-15.62
JP모간중동&아프리카 자A(주식)	1,564	글로벌신흥국주식	-5.12	-8.46	27.68

주1) 1개월 수익률순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주2)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1개월 이상 운용 펀드 대상
주3) 클래스의 경우 대표 펀드만 표시

세계 주요 지수 기간별 성과

(기준일 : 2009년 11월 30일) (단위: %)

지역별 주요 지수		종가	수익률 1개월	3개월	1년	5년	연초후	상관계수
MSCI 지수 (CR)	글로벌 주식	308.27	2.93	4.09	23.24	1.21	21.77	0.50
	신흥국 주식	41,455.06	3.24	9.01	59.20	2.39	52.17	0.76
	북미주식	1,191.15	5.63	7.09	22.96	-1.26	22.14	0.27
	남미신흥국주식	7,258.67	7.59	15.86	62.49	2.66	55.46	0.32
	유럽주식	1,073.04	1.57	2.58	18.45	1.33	17.71	0.40
	유럽신흥국주식	4,274.23	1.58	9.69	55.15	2.08	58.33	0.50
	아-태주식	95.74	-1.46	-1.90	26.05	1.60	22.08	0.78
	아-태주식(일본제외)	409.52	1.67	6.89	53.23	2.20	47.59	0.82
	아시아신흥국주식	586.70	2.25	7.63	66.72	2.36	56.77	0.86
	일본주식	522.34	-5.80	-12.47	1.33	-1.85	-1.44	0.66
	중국주식	64.48	2.45	13.57	74.65	2.73	58.08	0.68
	브라질주식	23,983,206	8.25	19.13	68.25	2.69	63.71	0.31
	러시아주식	701.07	2.63	14.64	60.65	2.10	70.08	0.47
	인도주식	683.24	7.35	9.78	97.29	2.77	80.15	0.48
MSCI WI 섹터지수 (CR)	에너지	205.81	1.64	7.97	10.51	2.03	14.48	0.34
	기초소재	189.40	8.83	9.37	43.15	2.09	39.81	0.53
	산업재	111.07	3.62	3.67	18.66	-1.37	16.32	0.51
	소비재(비생필품)	80.20	1.85	2.61	30.76	-1.72	27.01	0.50
	소비재(생필품)	113.28	2.40	6.79	12.40	1.93	12.10	0.35
	헬스케어	94.72	5.82	5.54	15.95	1.53	10.58	0.29
	금융	72.96	0.50	-2.68	19.09	-2.01	20.57	0.42
	IT	46.59	6.10	10.06	35.74	1.76	33.30	0.33
	통신서비스	49.61	3.05	3.45	3.91	-1.51	1.27	0.32
	공공서비스	103.03	2.79	-1.26	-3.99	1.73	-5.00	0.35
섹터지수 (CR)	KRX 자동차	950.48	-5.82	0.23	112.62	2.40	112.19	0.79
	KRX 헬스케어	1,059.22	-7.30	-6.80	18.42	2.65	9.68	0.62
	KRX 은행	915.78	-3.21	10.32	85.00	2.35	80.65	0.73
	KRX IT	1,062.09	-0.59	-8.36	70.12	2.42	73.08	0.90
	KRX 반도체	1,398.96	0.13	-2.74	114.23	2.80	118.60	0.86
글로벌 채권 지수	JPM GBI	157.39	0.97	1.43	1.95	1.88	0.81	-0.27
	JPM EMBI	231.35	1.07	6.05	31.94	2.08	24.84	0.43
상품(종가)	WTI($/배럴)	77.63	0.88	11.87	42.62		74.02	0.18
	두바이유($/배럴)	77.71	0.80	10.45	63.22		113.20	0.21
	금($/온스)	1,181.10	13.52	24.04	44.71	2.77	33.56	0.03
	대두(¢/부셸)	1,060.40	8.43	-3.60	20.09	2.50	9.07	0.15
	옥수수(¢/부셸)	402.60	10.00	23.42	15.23	2.50	-1.08	0.08
	설탕(¢/lb NYBOY)	22.07	-0.41	-9.51	85.46	2.72	88.79	0.10
	CRB 상품 가격 지수	277.02	2.60	9.37	13.43	1.57	21.03	0.24
리츠	글로벌	1,494.46	1.41	5.42	38.88	-1.55	27.46	0.47
	유럽	1,778.16	-1.82	3.77	41.71	-1.73	32.09	0.40
	아시아	1,436.96	-0.62	4.75	43.02	1.67	37.11	0.65
	호주	646.25	1.10	0.24	-18.93	-2.21	-6.55	0.36
	일본	1,493.77	-8.38	-18.33	-5.34	-1.31	-6.71	0.53
환율 원/각국통화 (단위 : 원)	미국(달러)	1,162.60	-1.77	-6.95	-20.90	1.61	-8.47	-0.40
	일본(100엔)	13.41	3.22	-0.44	-12.85		-3.61	-0.51
	유로(EURO)	1,745.85	-0.11	-2.71	-6.61		-1.63	-0.32
	영국(파운드)	1,912.75	-2.20	-6.05	-15.05		2.73	-0.22
	브라질(헤알)	665.60	-2.29	-0.34	3.35	2.36	24.19	-0.03
	인도(루피)	25.04	-0.67	-2.03	-15.38		-3.84	-0.27
	러시아(루블)	39.79	-2.05	1.22	-24.46	1.47	-7.87	-0.35
	중국(위안)	170.32	-1.66	-6.84	-20.86	2.03	-7.60	-0.43

주요 리보 금리

리보(6개월) (단위: %, %P)	종가	2009년 9월 말	2009년 8월 말	2008년 말	2007년 말	등락폭 1개월	3개월
미국	0.98	0.99	1.01	2.98	4.71	-0.01	-0.03
유로	0.84	0.81	0.74	2.96	5.94	0.03	0.10
영국	0.50	0.53	0.55	0.95	0.98	-0.03	-0.05
일본	0.49	0.56	0.63	1.75	4.60	-0.08	-0.14
한국(코리보)	3.20	3.24	3.20	4.93		-0.04	0.00

자료: 이데일리

주1) 5년 수익률은 연환산 수익률임
주2) 상관계수: 최근 3년간 코스피200지수와 상관관계를 계산한 것임.
주3) CR(Capital Return): 배당을 포함하지 않은 주가지수로 계산.
주4) JPM GBI: JP모건 글로벌 채권지수(JPMorgan Government Bond Index Global TR)
주5) JPM EMBI : JPM 글로벌 신흥국 채권지수(JPMorgan Emerging Market Bond Index Global TR)
주6) R/J CRB :Reuters-Jefferies CRB Index(TR)로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등 주요 19개 상품선물가격에 가중치를 달리 적용해 산출한 지수임
주7)리츠지수는 FTSE EPRA/NAREIT (TR)지수임.
주8) 리보금리: 런던 금융시장에서 은행간 대출시 적용되는 통화별 대출금리로 국제금융시장의 단기 기준 금리.
주9) 코리보의 경우 국내 시중은행 7곳과 특수은행 3곳의 기간별 금리를 통합해 한국내 산출.

2009년 11월 펀드자금 동향

비과세 종료로 해외펀드 환매확대

공모펀드 자금동향

한달간 설정액 3조 1,327억원 증가

펀드평가사 제로인(www.FundDoctor.co.kr)의 유형분류기준에 따라 펀드 자금동향을 조사한 결과, 공모펀드 설정액은 11월말 현재 228조 5,688억원으로 집계, 전달에 비해 3조 1,327억원이 증가(재투자분 제외)한 것으로 집계됐다.

펀드시장 규모는 증가세로 반전됐지만 대다수 주요 펀드 유형은 여전히 유출세를 나타내고 있는 와중에 MMF와 채권형의 설정액이 각각 4조 5,461억원, 113억원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현금흐름으로는 각각 4조 6,292억원, 136억원이 유입됐고, 기타유형으로 1,759억원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형에서도 환매 지속 국내주식펀드는 유입, 해외주식펀드는 유출

주식형의 경우 국내주식펀드로는 1,648억원이 유입되며 환매가 부분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연말이 다가올수록 비과세 혜택 종료 등의 메리트 감소로 해외주식펀드에서는 7,214억원이 빠져나갔다.

공모펀드 유형별 1개월간 자금 추이

기준일: 2009년 12월 01일 (단위:개, 억원)

	펀드수	설정액	설정액 순증감	순자산액	비중	현금흐름
주식형	2,631	1,256,793	-8,356	1,065,472	51.42	-5,566
혼합형	1,266	151,603	-1,466	141,058	6.81	-1,309
채권형	426	68,271	113	71,127	3.43	136
MMF	233	699,351	45,461	709,652	34.25	46,292
기타	1,228	109,670	-4,425	84,927	4.10	1,759
총 계	**5,784**	**2,285,688**	**31,327**	**2,072,236**	**100.00**	**41,313**
국내주식형	1,298	715,665	868	634,505	30.62	1,648
국내혼합형	1,043	88,822	-724	91,574	4.42	-701
국내채권형	381	62,176	85	64,372	3.11	89
국내MMF	233	699,351	45,461	709,652	34.25	46,292
국내기타	1,045	81,912	-4,078	65,837	3.18	2,000
국내소계	**4,000**	**1,647,925**	**41,612**	**1,565,940**	**75.57**	**49,328**
해외주식형	1,333	541,128	-9,225	430,967	20.80	-7,214
해외혼합형	223	62,781	-741	49,485	2.39	-607
해외채권형	45	6,095	28	6,755	0.33	46
해외기타	183	27,759	-347	19,090	0.92	-240
해외소계	**1,784**	**637,763**	**-10,285**	**506,297**	**24.43**	**-8,015**

주1) 제로인 유형분류기준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주2) ETF제외

주3) 설정액 순증감은 재투자분 제외, 현금흐름은 실제 자금유출입액

주4) 혼합형은 국내외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절대수익추구형을 포함

주5) 기타는 국내외 기타, 부동산형, 커머더티형을 포함

국내 주식펀드 자금동향

국내주식형펀드 설정액 868억원 증가

2009년 11월말 기준으로 국내주식형펀드 설정액(ETF제외)은 전달에 비해 868억원 늘어난 71조 5,665억원으로 집계됐다. 실제 현금유입액은 1,648억원으로 집계됐다.

인덱스형에 자금 유입

시장수익률을 추종하도록 설계돼 수수료가 저렴한 인덱스 펀드를 중심으로 자금이 1,491억원(K200인덱스펀드 1,239억원, 기타인덱스펀드 252억원) 유입됐고, 특정 섹터나 그룹주에 투자하는 테마주식펀드도 107억원 소폭 자금이 들어왔다. 엑티브 운용을 하는 일반주식펀드도 104억원 증가했다.

중소형주식펀드, 배당주식펀드 자금 유출 지속

반면, 상대적으로 중소형 가치주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중소형주식펀드(18억원) 와 배당주식펀드(36억원)에서는 자금유출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국내주식펀드 소유형별 1개월간 자금 추이

기준일: 2009년 12월 01일 (단위:개, 억원)

	펀드수	설정액	설정액 순증감	순자산액	비중	현금흐름
일반주식	780	532,124	-583	462,904	72.96	104
중소형주식	42	3,595	-23	3,169	0.50	-18
배당주식	64	41,144	-13	36,981	5.83	-36
테마주식	187	84,009	65	78,945	12.44	107
K200인덱스	171	45,058	1,202	43,087	6.79	1,239
기타인덱스	54	9,736	220	9,418	1.48	252
총 계	**1,298**	**715,665**	**868**	**634,505**	**100**	**1,648**

주1) 제로인 유형분류기준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주2) ETF제외
주3) 설정액 순증감은 재투자분 제외, 현금흐름은 실제 자금유출입액

해외 주식펀드 자금동향

해외주식형 설정액, 9,225억원 감소

해외주식펀드 설정액은 전달에 비해 9,225억원 감소한 54조 1,128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말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 종료 등의 영향으로 환매행진이 계속되면서 전 유형에서 환매 속도가 빨라지며 7,214억원의 자금유출이 되었다.

중국, 브릭스 투자펀드 환매 증가

특히 성과개선으로 원금회복에 도달한 중국주식펀드(3,191억원) 및 브릭스 중심의 글로벌신흥국주식펀드(2,064억원)에서 환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브라질주식펀드는 자금 유입

향후에도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브라질주식펀드로는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있고, 북미주식펀드가 1,00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삼성미국대표주식자 1[주식]_Cf'에만 1,000억원이 유입된 결과다.

해외주식펀드 소유형별 1개월간 자금 추이

기준일: 2009년 12월 01일 (단위:개, 억원)

	펀드수	설정액	설정액 순증감	순자산액	비중	현금흐름
권역별						
글로벌주식	100	7,301	-132	4,867	1.13	-99
유럽주식	59	6,535	-134	4,426	1.03	-91
북미주식	20	1,313	997	1,219	0.28	1,001
아시아태평양주식	28	5,240	-97	4,161	0.97	-78
아-태주식(ex J)	69	37,266	-952	30,480	7.07	-856
동남아주식	51	8,100	-143	6,349	1.47	-115
글로벌신흥국주식	198	137,773	-2,389	117,034	27.16	-2,064
아시아신흥국주식	62	34,742	-697	26,385	6.12	-528
유럽신흥국주식	43	12,111	-156	7,133	1.66	-90
남미신흥국주식	56	14,824	-342	12,149	2.82	-292
프론티어마켓주식	21	1,021	42	511	0.12	19
기타신흥국주식	6	45	0	22	0.00	0
섹터별						
에너지섹터	59	6,992	-92	4,575	1.06	-57
기초소재섹터	34	4,786	-27	4,650	1.08	-28
소비재섹터	21	1,193	-20	831	0.19	-11
헬스케어섹터	8	589	-6	529	0.12	-5
금융섹터	21	3,201	-149	2,048	0.48	-81
정보기술섹터	1	2	-0	2	0.00	-0
공공서비스섹터	2	133	-2	85	0.02	-1
멀티섹터	52	8,940	-143	6,265	1.45	-98
국가별						
일본주식	75	9,063	-269	3,965	0.92	-119
호주주식	2	22	-1	18	0.00	-1
중국주식	201	203,407	-4,030	166,440	38.62	-3,191
인도주식	52	17,958	-534	16,241	3.77	-487
브라질주식	38	4,358	56	4,402	1.02	60
러시아주식	30	13,707	-6	5,782	1.34	-3
타이완주식	9	203	9	162	0.04	7
말레이시아주식	5	47	-1	44	0.01	-1
기타국가주식	10	255	-7	190	0.04	-4
총 계	**1,333**	**541,128**	**-9,225**	**430,967**	**100**	**-7,214**

주1) 제로인 유형분류기준
주2) ETF제외
주3) 설정액 순증감은 재투자분 제외, 현금흐름은 실제 자금유출입액

11월 신규 설정 펀드

한달간 97개 펀드 신규 설정

11월 들어 총 97개 펀드(운용펀드 제외)가 신규로 설정됐다. 이중 21개 펀드는 11월 이전에 설정된 펀드 중에서 클래스펀드만이 추가로 설정된 펀드로 인터넷전용 펀드가 11개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운용펀드 기준 52개

실제 운용펀드 기준으로 살펴보면 52개 펀드가 신규로 설정됐다. 이중 ELF가 20개 설정됐다. 국내주식펀드는 14개 설저되었는데 이중 일반주식펀드가 9개이고, 국내최초로 바이오헬스케어 지수와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코리아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펀드가 눈에 띄었다.

또한 투자등급이 낮은 펀드에 투자해 고수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하이일드채권펀드가 5개 설정됐다. 해외주식펀드로는 중국주식 펀드 2개, 북미주식 펀드 1개씩이 설정됐다.

드림운용의 '드림TrendFollowing글로벌자산배분자 1[주혼-재간접] A형'는 글로벌 자산군을 대표할 수 있는 주식, 상품, 부동산 관련 ETF에 시장상황에 맞춰 자산배분하는 펀드로 1개월간 배타적 사용권한을 부여받았다.

신규펀드 설정액 6,129억원

12월 1일 기준으로 11월 한달간 신규로 설정된 펀드의 설정액은 총 6,129억원으로 이중 MMF가 3,299억원으로 54%를 차지했다. 주식형은 1,866억원으로 31%를 차지했다.

설정액 상위펀드를 살펴보면 '현대플래티늄법인용MMF 1' 3,199억원, '삼성미국대표주식자 1[주식]_Cf' 1,000억원, '삼성THE증권 1[주식](Cf)' 600억원으로 법인용과 F클래스(펀드, 보험업법상 특별계정, 기관투자자, 국가기금 등을 투자대상으로 함)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펀드중에서는 '한국투자압축포트폴리오분배형자 1(주식)(A)'가 10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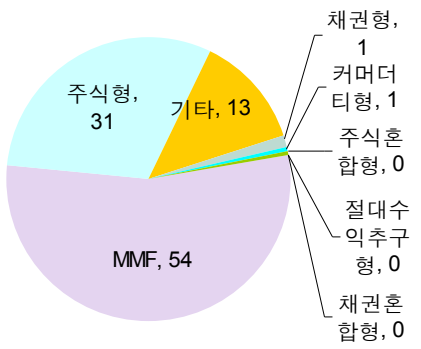
[류승미 제로인 펀드애널리스트 www.funddoctor.co.kr]

11월 신규펀드 설정현황 (공모)

기준일: 2009년 12월 01일 (단위: 억원, 개, %)

펀드 유형	국내투자		해외투자		전 체	
	설정액	펀드수	설정액	펀드수	설정액	펀드수
주식형	834	39	1,031	16	1,866	55
주식혼합형	-	-	10	1	10	1
채권혼합형	3	2	0	1	3	3
채권형	85	7	-	-	85	7
절대수익추구형	3	1	-	-	3	1
부동산형	-	-	-	-	-	-
MMF	3,299	2	-	-	3,299	2
기타	829	25	-	-	829	25
커머더티형	-	-	33	3	33	3
운용사 전체	5,054	76	1,075	21	6,129	97

신규 펀드 시장 비중 현황



주1) 제로인 유형 분류 체계에 의함
주2) 유형내 ETF는 제외, 클래스 펀드 기준 산출
주3) 11월 1일 ~11월 30일 동안 설정된 펀드로 설정액 기준은 12월 1일 기준임.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11월 신규설정 공모펀드 설정액 상위 펀드

기준일: 2009년 12월 01일 단위: 개,억원

펀드명	운용사	설정일	설정액	펀드유형
현대플래티늄법인용MMF 1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20091118	3,199	MMF
삼성미국대표주식자 1[주식]_Cf	삼성투자신탁운용	20091124	1,000	해외주식형
삼성THE 1[주식](Cf)	삼성투자신탁운용	20091127	600	주식형
한국투자압축포트폴리오분배형자1(주식)(A)	한국투자신탁운용	20091113	106	주식형
동양뉴스타MMF 1	동양투자신탁운용	20091110	100	MMF
신한BNPPHS- 4[ELS-파생]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20091113	83	기타
KTB 2STOCK11[ELS-파생]	KTB 자산운용	20091106	79	기타
신한BNPPHS- 3[ELS-파생]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20091106	74	기타
KTB 2STOCK12[ELS-파생]	KTB 자산운용	20091106	69	기타
마이다스 2StarSH- 1(ELS-파생)	마이다스자산운용	20091127	61	기타

주1) 유형체계 :제로인 유형에 의한 분류
주2) 설정액 상위 펀드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2009년 11월 변액보험

두 달 연속 하락, 일반펀드보다 선방

변액보험 국내 성과

수급약화 지속, 유동성 축소 불안감으로 코스피가 11월 한달간 1.59%하락한 가운데 변액보험 국내주식펀드도 두 달 연속 약세를 나타냈다.

일반주식펀드
11월 한달간 -1.03%

2009년 12월 1일 생명보험협회에서 공시한 기준가격을 기초로 펀드평가사 제로인이 11월 한달간 변액보험 펀드의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일반주식펀드는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 하락률보다 0.56%포인트 높은 -1.03%의 수익률 기록했다.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일반주식펀드의 평균수익률인 -1.23%와 비교하면 0.2%포인트 높은 양호한 성과다. 이는 변액보험의 위험자산 투자비중이 자산운용사의 일반주식펀드에 비해 낮아 코스피 하락에 따른 영향을 덜 입었기 때문이다.

변액보험

11월 수익률

최고 9.58%

변액보험 배당주식이 -1.72%로 주식형 펀드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낮았고, KOSPI200인덱스펀드는 -1.01%로 가장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일반주식혼합펀드와 일반채권혼합펀드는 각각 -0.06%, 0.37%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채권펀드의 경우 일반채권펀드는 1.00%의 수익률로 강세를 나타냈다. 경기회복 둔화우려로 연내 기준금리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금리가 하락한 점이 양호한 성과의 배경이다. 일반채권에 비해 보유채권의 잔존만기가 길고, 국공채 투자비중이 높은 우량채권 펀드는 1.19%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변액보험 국내 유형별 평균 수익률 및 순자산액

기준일 :2009년12월01일 (단위: 개,억원, %)

대유형	소유형	펀드수	순자산액	1개월	3개월	1년	연초후
주식형	일반주식	61	77,377	-1.03	-1.58	42.47	35.43
	배당주식	4	515	-1.72	-0.81	46.15	35.15
	K200인덱스	18	3,448	-1.01	-1.48	42.49	35.28
주식혼합형	일반주식혼합	116	159,629	-0.06	-0.12	26.66	21.18
채권혼합형	일반채권혼합	159	122,098	0.37	0.57	18.45	13.79
절대수익추구형	채권알파	10	1,139	0.86	1.06	10.51	5.61
KOSPI				-1.59	-2.28	44.56	38.34
KOSDAQ				-4.55	-9.79	51.01	39.83
채권형	일반채권	107	25,409	1.00	1.58	7.32	3.46
	초단기채권	15	828	0.26	0.66	3.38	2.73
	우량채권	3	1,114	1.19	1.72	5.21	0.72
MMF	MMF	7	1,497	0.24	0.59	4.32	3.61
KIS채권지수(1년 종합)				0.43	1.13	5.65	4.00

주1) 펀드수, 순자산액은 기준일 현재 평균수익률 계산시 대상으로 삼은 펀드들의 합계
주2) 유형별 수익률은 1개월 이상 운용된 펀드들의 단순평균 수익률을 일별로 계산한 후 기간누적해 산출함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변액보험 해외 펀드 성과

변액보험 해외주식펀드 1.50% 상승

고용상황과 주택지표 악화에도 불구, 경기선행지수가 상승하고 G20재무장관회의에서 경기부양책 유지 합의에 따라 출구전략 시행에 대한 연기 가능성이 높아지며글로벌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달러약세, GDP증가로 신흥국주식펀드가 강세를 보이면서 변액보험 해외주식형은 11월 한달 동안 1.50% 상승했다.

이는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해외주식형 평균수익률(2.48%)보다는 낮은 수치다.

브라질주식펀드 8.90%

내수경기 회복과 해외자금 유입 등의 호재로 브라질 증시가 강세를 보인 남미신흥국펀드가 8.90%로 해외주식 가운데 가장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다.

일본주식펀드 -6.69%

글로벌 수요회복과 은행권 대출 증가로 유동성 우려가 완화된 중국주식펀드도 1.10%상승했다. 신흥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주식펀드가 4.78% 상승하는 등 강세를 지속했지만 동유럽 국가들의 신용등급 하향조정 여파로 유럽신흥국주식펀드는 1.24% 하락했다.

북미와 유럽주식펀드는 각각 0.45%와 0.41% 상승했다. 반면 일본과 동남아주식펀드는 각각 -6.69%, -0.51% 로 부진했다. 기후변화, 농업관련산업 투자펀드들이 포함된 글로벌 멀티섹터펀드는 2.29% 상승했다.

해외주식혼합 1.22%

해외주식혼합형과 해외채권혼합형은 각각 1.22%, 0.94%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해외 리츠 등 부동산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해외부동산형펀드는 -0.36%로 하락세가 지속됐다.

해외채권혼합 0.94%

변액보험 해외펀드 유형별 수익률 및 순자산액

기준일 :2009년12월01일 (단위: 개,억원, %)

대유형	소유형	펀드수	순자산액	1개월	3개월	1년	연초후
해외주식형		74	15,114	1.50	4.91	32.56	36.88
	글로벌주식	14	2,065	0.78	1.13	17.24	23.70
	글로벌신흥국주식	15	3,713	2.40	8.97	48.50	52.05
	유럽주식	5	49	0.41	0.85	14.52	17.19
	북미주식	2	21	0.45	0.51	9.49	19.42
	아시아태평양주식	3	562	0.15	2.01	31.31	30.04
	유럽신흥국주식	3	166	-1.24	6.02	43.74	52.84
	아시아신흥국주식	6	6,062	1.21	2.23	35.08	39.00
	남미신흥국주식	3	233	8.90	15.85	62.12	73.45
	동남아주식	1	12	-0.51	3.73	40.98	38.36
	일본주식	1	36	-6.69	-10.49	-0.30	-0.01
	중국주식	6	1,343	1.10	6.28	45.80	39.08
	러시아주식	1	8	4.78	16.95	66.35	84.57
	에너지섹터	1	125	-1.11	3.11	16.21	34.48
	원자재섹터	9	395	1.66	5.90	17.17	26.39
	멀티섹터	4	323	2.29	2.72	15.91	19.97
해외주식혼합형		82	32,003	1.22	3.43	23.97	23.39
해외채권혼합형		36	11,240	0.94	1.88	15.72	13.77
해외채권형		4	65	1.01	2.02	8.40	9.31
해외부동산형		2	183	-0.36	-0.91	8.56	9.44

주1) 펀드수, 순자산액은 기준일 현재 평균수익률 계산시 대상으로 삼은 펀드들의 합계
주2) 유형별 수익률은 1개월 이상 운용된 펀드들의 단순평균 수익률을 일별로 계산한 후 기간누적해 산출함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변액보험 펀드 자금 동향

변액보험 순자산액 4,482억원 증가한 46조 923억원

국내증시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해외증시가 강세를 보이며 변액보험 운용규모는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펀드평가사 제로인(www.FundDoctor.co.kr)의 유형분류 기준에 따라 변액보험 자금동향을 조사한 결과, 11월말 변액보험 순자산액은 10월말보다 4,482억원 증가한 46조 923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주식형은 10월말보다 9,07억원이 감소했다. 이로 인해 변액보험 전체 규모에서 국내주식형이 차지하는 순자산액 비중은 9월말 18.0%에서 17.7%로 0.3%포인트 줄었다.

운용규모가 가장 큰 주식혼합형은 1,501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채권혼합형에서 1,760억원이 증가했다. 채권형에서도 887억원이 증가했다.

해외주식형 펀드의 순자산액은 302억원 증가했지만 변액보험 내 순자산액 비중은 3.28%로 오히려 감소했다. 해외주식혼합형과 해외채권혼합형 순자산액도 각각 614억원, 213억원 늘었다.

변액보험 전체에서 국내와 해외를 합한 주식형 순자산액 차지하는 비중은 20.9%로 나타났다.

[조성욱 제로인 펀드애널리스트 www.funddoctor.co.kr]

변액보험 유형별 자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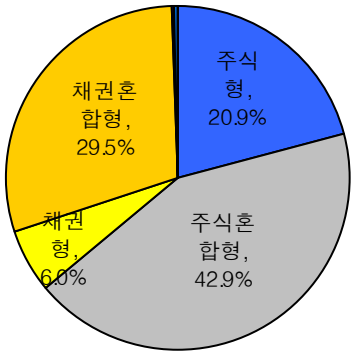
기준일: 2009년 12월 01일 (단위:억원)

펀드 유형	펀드수	순자산액		
		10월말	11월말	증감
주식형	85	82,281	81,374	-907
주식혼합형	123	164,170	165,671	1,501
채권혼합형	167	123,041	124,802	1,760
절대수익추구형	10	1,133	1,139	5
채권형	128	26,923	27,810	887
MMF	7	1,408	1,497	89
기타	6	14	26	11
국내 소계	526	398,972	402,318	3,346
해외주식형	74	14,813	15,114	302
해외주식혼합형	82	31,389	32,003	614
해외채권혼합형	36	11,026	11,240	213
해외채권형	4	58	65	6
해외부동산형	2	183	183	-0
해외 소계	198	57,469	58,605	1,136
전체	724	456,441	460,923	4,482

주1) 제로인 유형분류 기준.

(단위: 억원, 개, %)

변액보험 시장현황(순자산액 기준)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변액보험 국내 주식형 1개월 성과 상위 Top 10

기준일: 2009년12월01일 (단위: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1년
KB VUL 파워주식집중형	89	일반주식	0.30	0.03	51.45
동부 VA 성장형	770	일반주식	0.02	0.44	33.94
알리안츠 VUL 성장형	9,036	일반주식	-0.08	-0.48	49.71
뉴욕 VUL 장기자산배분형	53	일반주식	-0.23	-0.87	36.25
미래에셋 VA 주식성장형	719	일반주식	-0.25	-0.23	28.56
미래에셋 VA 주식성장형	80	일반주식	-0.33	-0.23	28.58
메트라이프 VA 가치주식형	1,183	일반주식	-0.35	-1.09	55.38
메트라이프 VA 가치주식형	1,246	일반주식	-0.36	-1.24	53.05
메트라이프 VUL종신 가치주식형	229	일반주식	-0.37	-1.13	54.01
동양 VUL종신 혼합성장형	495	일반주식	-0.38	-2.47	38.49

변액보험 국내 주식혼합형 1개월 성과 상위 Top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1년
대한 VUL종신 가치주혼합형	936	일반주식혼합	0.63	0.69	26.13
ING 파워VUL 안정성장혼합형	9,351	일반주식혼합	0.61	0.91	16.37
ING VA 안정성장혼합형II	215	일반주식혼합	0.60	0.65	15.46
ING VA 안정성장혼합형	18,504	일반주식혼합	0.59	0.84	16.48
KB VUL&VA 시스템성장형	716	일반주식혼합	0.45	-0.78	21.30
신한 VA 혼합형	557	일반주식혼합	0.41	0.63	27.64
삼성 VUL 혼합형	5,390	일반주식혼합	0.41	0.72	27.15
동부 변액종신&변액CI종신 혼합형	77	일반주식혼합	0.40	1.53	25.65
대한 VA 가치주혼합형 II	10,421	일반주식혼합	0.37	0.90	25.42
교보 VA 블루칩주식혼합형	882	일반주식혼합	0.37	-0.24	26.66

변액보험 국내 채권혼합형 1개월 성과 상위 Top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1년
대한 VUL종신&변액CI종신 혼합형III	111	일반채권혼합	1.16	1.76	
흥국 퇴직연금 혼합형	50	일반채권혼합	1.01	1.84	23.11
ING VUL종신 구조화혼합형	690	보수적자산배분	0.98	1.42	7.95
흥국 VUL종신 혼합형	56	일반채권혼합	0.98	1.34	16.97
흥국 VA 혼합형	181	일반채권혼합	0.93	1.16	15.77
흥국 변액종신 혼합형	68	일반채권혼합	0.93	1.45	17.25
대한 VA 혼합형 II	5,407	일반채권혼합	0.93	1.57	18.17
흥국 변액CI 혼합형	53	일반채권혼합	0.92	1.26	18.29
대한 VA 배당주혼합형 II	576	일반채권혼합	0.89	1.21	12.65
카디프 VA 혼합형5	446	일반채권혼합	0.85	0.93	13.54

변액보험 국내 채권형 1개월 성과 상위 Top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1년
대한 VA 채권형 II	909	일반채권	1.51	2.14	9.44
대한 VUL 채권형	729	일반채권	1.44	2.14	8.48
금호 VA 채권형	65	일반채권	1.38	1.95	8.19
대한 VUL종신&변액CI종신 채권형III	52	일반채권	1.37	1.93	
대한 변액종신 채권형	1,006	일반채권	1.36	2.03	8.53
대한 변액CI 채권형	2,836	일반채권	1.36	1.95	9.27
KB VUL&VA 채권형	88	일반채권	1.35	1.97	6.80
카디프 VUL&VA 베스트채권형	269	일반채권	1.34	1.88	7.86
카디프 VA 안정형1	167	일반채권	1.33	1.97	7.77
대한 VUL종신 채권형	363	일반채권	1.28	1.93	7.78

주1) 순자산액 50억원 이상, 1개월 수익률순 자료: 제로인(www.funddoct

주2) 펀드명은 제로인이 변액상품을 구분해 부여한 것으로 변액연금은 VA(Variable Annuity), 변액유니버셜은 VUL(Variable Universal Life)로 표시함

변액보험 해외 주식형 1개월 상위 Top 10

기준일: 2009년12월01일 (단위: 억원, %)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1년	연초후
신한 VUL&VA 봉쥬르중남미주식형	143	남미신흥국	9.58	16.77	66.67	77.73
카디프 VUL 파베스트라틴아메리카재간접	69	남미신흥국	8.40	16.88	69.48	80.04
신한 VUL&VA 봉쥬르 브릭스플러스 주식형	319	신흥국주식	4.98	12.80	57.67	58.20
카디프 VUL&VA 브릭스재간접형	1,330	신흥국주식	4.57	13.42	58.32	59.55
라이나 VUL 애그리비즈니스(AGRIC)	289	멀티섹터	4.39	5.03	38.52	46.51
AIG VUL 브릭스주식형	323	신흥국주식	4.08	14.08	58.31	64.89
메트라이프 VUL 브릭스주식형	93	신흥국주식	3.55	12.53	54.71	64.83
PCA VUL 친디아주식형	2,210	아시아신흥국	3.17	5.85	51.78	64.01
ING VUL 브릭스주식재간접형	65	신흥국주식	2.93	11.20	49.41	58.63
PCA VUL 이머징네비게이터	329	신흥국주식	2.83	9.28	51.94	52.41

변액보험 해외 주식혼합형 1개월 상위 Top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1년	연초후
하나HSBC VA 이머징브릭스주식성장형	182	신흥국	3.86	6.89	33.74	36.82
미래에셋 VUL 인디아주식안정성장자산배분형	242	아시아신흥국	3.54	5.16	43.21	43.56
동양 VUL&VA 브릭스70주식성장형	55	신흥국	3.09	9.25	36.68	38.55
미래에셋 VA 브릭스혼합자산배분형	271	신흥국	2.87	7.37	38.65	39.06
흥국 VA 인베스트브릭스혼합형	261	신흥국	2.86	5.53	23.55	22.61
대한 VUL BRICs스타주식혼합형	296	신흥국	2.82	8.94	36.67	36.91
대한 VA BRICs스타혼합형 II	942	신흥국	2.78	8.14	32.60	31.81
교보 VA II 파워브릭스인덱스혼합형	521	신흥국	2.76	5.67	24.98	27.19
교보 VUL 파워브릭스인덱스혼합형	136	신흥국	2.60	5.49	25.43	27.82
알리안츠 VUL 글로벌이머징마켓혼합재간접형	144	신흥국	2.31	3.25	17.77	22.20

변액보험 해외 채권혼합형 1개월 상위 Top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1년	연초후
미래에셋 퇴직연금 친디아증권투자형(채권혼합)	114	아시아신흥국	1.66	3.98	26.91	22.29
미래에셋 VA 친디아안정자산배분형	3,062	아시아신흥국	1.64	3.46	21.62	19.33
미래에셋 VA 차이나안정자산배분형	194	아시아신흥국	1.22	3.37	19.77	17.55
신한 VA 글로벌이머징혼합안정형	366	신흥국	1.09	3.64	19.23	16.72
하나HSBC VA 글로벌혼합형	241	글로벌	1.07	2.20	15.89	12.88
미래에셋 VA Korchindia포커스7주식안정자산배분형	809	신흥국	1.06	1.47	18.53	15.15
미래에셋 VA 아시아퍼시픽컨슈머주식안정자산배분형	955	아태(ex J)	0.97	2.89	17.58	17.18
미래에셋 VA 아시아태평양Q펀드자산배분형	100	아태(ex J)	0.80	1.76	15.72	15.38
삼성 VA 더블유인덱스30혼합형	422	글로벌	0.80	1.38	6.51	4.20
미래에셋 VA 주식안정자산배분형	3,064	글로벌	0.78	1.18	19.72	16.24

주1) 순자산액 50억원 이상, 1개월 수익률순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주2) 펀드명은 제로인이 변액상품을 구분해 부여한 것으로 변액연금은 VA(Variable Annuity), 변액유니버셜은 VUL(Variable Universal Life)로 표시함